

무한과의 충돌

| 제리 캐츠 | 김기형 옮김 |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어느날 무한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한 여성의 경험과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몸을 따라다니는 자각 덩어리

1982년 봄, 파리Paris에 살고 있던 27살의 수잔 시겔은 임신 중으로 출산 교육을 받고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가 다가오자, 시겔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줄을 섰다. 갑자기 시겔은 귀가 멍멍해지더니 즉시 일종의 막에 갇혀서 나머지 주변 현장에서 격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움직임과 반응이 극도로 기계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버스에 올라타기 위해 오른발을 내디뎠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힘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 힘은 조심스럽게 마치 다이 마이트처럼 폭발하여 일상적인 의식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나를 둘로 분열시키는 것 같았다. 벌어진 틈을 통해 전에 ‘나’로 여겼던 존재는 내 안에 본래 점유하던 위치에서 밀려나 머리 좌측 후방 1피트쯤 되는 지점에 새롭게 자리 잡았다. ‘나’는 이제 내 신체의 뒤에서 안구를 통하지 않고 세계를 보게 된 것이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올 때 시겔은 자신이 마치 몸을 따라다니는 ‘자각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이 덩어리는 신체의 좌측 뒤편에 자리잡은 관찰자인데 몸, 마음, 감정과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였다. 관찰자는 계속 따라다녔고, 그에 따르는 공포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 공포란 몸이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공포심이었다. 이 같은 지켜보기는 수개월간 이어졌으며 수면 중에도 멈추는 법이 없었다. 시겔은 공포심과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고 자주 긴 수면을 취해 이를 완화했다.

관찰자가 있어서 ‘좋은 점’이라면 어떤 개별적 자아, 즉 ‘나’를 유지시켰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수개월 후 관찰자가 사라져버리자, 개별적 자아인 ‘나’의 모든 흔적도 같이 지워져 버렸다.

“개별적 자아가 사라지면, 신체에서 더 이상 당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몸은 단지 윤곽선만 남은 채 이전에 꼭 들어차있던 것으로 여겨졌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

이제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지각하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한 기능들은 아무 이상 없이 계속 유지되었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시겔은 이 살아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왜 자신의 신체적 기능은 계속 남아있는지를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

“삶 전체가 영원히 풀 수 없고 신비로운 하나의 공안(公案, koan)이 되어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관찰자가 사라지고 친숙한 ‘나’의 모든 흔적 또한 사라지자,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다. 시겔은 이것을 테러(terror 단순한 공포보다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에서-역주)라고 불렀다. 손발이 계속 떨렸고, 많은 양의 땀을 계속 흘렸다. 이제 잠은 약효를 다 했는데 더 이상 잠들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면도 위안이 되지 못했다. 깨어있는 존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면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존재도 없었다.

“사라진 것은 감정을 개인에 속하는 것으로 느끼는 개별적 자아라는 기준점이다. 모든 감정적 상태 혹은 정신적 상태에 텅 빔이 늘 공존했고, 그리하여 개인적인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사고, 감정,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신이 지나치게 각성되어 기진맥진해졌다. 텅 빔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계속 신경을 썼기에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일 여력이 거의 없었다. 나의 삶은 자아가 없다는 자각과 거기에 따르는 의문으로 채워졌다. 개별적인 정체성이 비어버린 상태는 수면 중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어떤 정신적 활동도 자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나마 바꿀 수 없었고, 그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체계화하고 평가하려는 어떤 시도도 개별적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없었다.”

시걸은 치료사들과 스승들을 여러 번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여담이지만, 시걸이 거의 모든 치료사들과 사랑에 빠지고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그냥 넘어가기엔 꽤 유머러스한 부분이다. 책은 이러한 연애행각을 의례히 그러하듯이 딱딱하고 관계적으로 어떤 허물도 없이 묘사를 한다. 시걸의 편집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스티븐 보디안Stephen Bodian은 책의 서문에서 독자들의 흥미를 더욱 유발하게끔 시걸이 그런 이야기들도 서술하도록 부추겼음을 밝혔다. 내 생각으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아닌가 싶다. 마치 무아無我(no-self) 경험에 흥미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그녀의 애정 생활의 세세한 측면까지 들려 줄 필요가 있다는 것처럼 여기니 말이다. 그렇지만 그런 연애편계로 인한 난관을 기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다만 그러한 난관을 묘

사하는 방식을 지적하는 것뿐이다.)

공포감은 하나의 느낌일 뿐

그 후 10년이 지나서 시결은 무아 상태의 영적인 측면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고, 불교의 문헌에서 무아(anatta)와 공경(shunyata)에 관한 자료를 다수 찾았다. 이제 시결은 자신의 경험을 이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길을 추구하는 이들이 찾고 바라는 것임을 깨달았다.

지난 10년간 시결이 감내해야 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매일 매일을 ‘나’가 없는 채로 생활해나가야 했던 것일 것이다. 시결은 이것을 “아무도 찾을 길 없는 광대한 공허 속에 (인격의) 기능들만 홀로 남았다”라고 기술했다. 시결은 불교에서 말하는 온蘊(the skandhas/aggregates)이란 개념이 인격 즉, ‘나’가 사라질 때 남는 인격적 기능들임을 깨닫고, 자신의 상태가 그러함을 발견했다. 오온五蘊이란 색, 수, 상, 행, 식을 뜻한다. 이들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자아自我란 환영이 생겨난다. 이들 요소가 실제로 자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버스정류장에서 시결에게 갑자기 일어났던 것처럼 오온의 진상이 드러난다면 자아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오온만이 익히 알려진 대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진다. 이들 요소가 속하는 자아란 존재하지 않고, 이들 요소들이 자아를 구성하지도 못하지만 그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아라는 환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결은 자신이 십 년간이나 겪어온 공포에 대해 묘사한 글은 찾을 수 없었다. 시결은, 진정한 영적인 체험의 탐구를 이루는 언어와 전제들은 배타적 체계이고 그러한 닫힌 체계를 넘어서는 체험을 말

하는 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이정표에 의지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 의심스러운 이정표 중에 하나가 공포라고 말한다.

“우리는 특정한 생각, 느낌 혹은 행동의 존재가 당사자가 깨달음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지표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깨달음의 지표가 되는지 확인해야 할 속성은 많고 다양하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간주되는 이에게 그것이 정말 사랑인지 혹은 지복인지 묻는다. 그들이 아직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싶어진다. 왜냐하면 사고의 부재가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는 한 징후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공포의 감정도 느낄까? 공포를 느낀다면 그들이 진정한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그러나 사실 공포를 느낀다면 이는 단지 공포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공포는 정묘한 무한함으로 가득하다

공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무렵 시절은, 우주적 의식의 체험은 종종 무시무시해서 당사자를 혼란과 공포에 빠트린다는 마하리시 마헤쉬 요기Maharishi Mahesh Yogi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다. 마헤쉬 요기는 그러한 체험을 확인해 줄 구루guru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를 통해 체험자는 자신의 체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기원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절은 많은 구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 시절의 상태를 처음으로 분명히 인정한 사람은 진 클라인Jean Klein 박사인데 시절에게 “그 경험을 계속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멈추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버린다면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라고 조언했다.

시겔은 경험을 계속 관조해 온 것이 자신이 10년간 행해온 것이란 것을 깨달았다. 10년간 자신의 정서 영역(느낌, 생각, 감정, 의지)을 내관內觀해오다가 그것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공포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내성內省(자성自省 즉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봄’)을 하는 한 무無와 맞부닥치게 되는데, 시겔은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을 응시하게 되면 느낌, 마음 상태, 감정, 행동에의 욕구를 발견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들의 부재, 즉 공허함과 조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클라인은 시겔이 존재의 참다운 본성을 깨달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시겔이 책이나 직접적 만남을 통해서 접한 다른 구루들도 동일한 판정을 내렸다. 시겔은 그들 중 많은 이들과 서신을 주고 받았다.

(그런 교류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아니다. 때는 1992년으로, 아직 인터넷의 초창기였다. 유즈넷Usenet에서 비이원非二元(nondual)론에 관한 자료교환과 토의가 가능했고 월드 와이드 웹이 초보단계에 있었고 이메일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갖춘 인물들이 있었지만, 월드 와이드 웹은 1993년에 가서야 크게 성장한다.

그런데 또 하나의 수잔 시겔이 이메일 포럼에 들어와 시겔이 진술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한 다음, 자신에게 실은 뇌종양이 있다고 내비친다면? 당신이라면 그녀에게 뭐라 말할 텐가? 그녀에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시겔의 체험을 종양 탓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체험 당시에 시겔이 종양을 앓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서평이 아니라—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나라면 잘 대처했으리란

시결은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을 응시하게 되면
 느낌, 마음 상태, 감정, 행동에의 욕구를 발견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들의 부재, 즉 공허함과 조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이 아니라,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어쨌든 계속해보자.....

위빠사나 명상을 가르치는 크리스토퍼 티트머스Christopher Titmuss는 시결에게 그녀가 비정상인이라 아니라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장담했다. 그러한 체험의 부재는 오로지 '나'의 존재만 부각시키고 개인적, 사회적, 지구적 차원의 결함을 초래하는 비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티트머스는 시결에게 그러한 체험의 영적인 의의에 대해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러한 체험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면 궁극적으로 공포를 초래하는 생각과 감정을 잠재우게 되리라고 했다. 공포가 잠잠히 사그라들면 체험을 온전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시결은 곧 자신의 경험이 광기에서 비롯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닌, 단지 불가해한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린 걸치 선禪센터Green Gulch Zen Center의 원장인 램 앤더슨Reb Anderson은 시결이 자신의 체험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누그러뜨리도록 도왔다. 그는 공의 체험은 더없는 행복이며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공쑥 자체를 안다는 의미에서 지복임을 시결이 깨닫도록 도왔다. 그는 오온을 통해서는 이 절대적 지복을 알 수 없으니 경직된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가르쳤다.

위빠사나 명상을 가르치는 잭 콘필드Jack Kornfield와 널리 알려진 연사이자 저자인 램 다스Ram Dass도 시결의 경험을 인정하고 보장했는데, 시결에게 의식의 변화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주었다.

알머스 A.H. Almaas도 시걸을 지지하는 대열에 동참했다. 시걸의 체험은 어떤 진행 과정의 일부이며, 자신이 경험한 것과 유사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시걸의 체험이 “병적인 것은 분명 아니며” 공포나 테러는 흔한 일이라고 확인해주었다. 또한 구루의 도움 없이도 현재의 체험을 잘 성취했지만 그 체험을 이해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비범한 이해력이 요구되기에 구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걸은 자신이 만나거나 읽어본 모든 인물들 중에서 라마나 마하르시 Ramana Maharshi의 가르침이 가장 분명하다고 느꼈고 그를 영적인 아버지로 간주했다. 시걸은 그의 대화록의 일부를 발췌해 놓고 “그는 나의 체험을 분명하고 쉽게 설명했기에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이해가 되었다”고 전체적으로 평했다. 시걸이 말하길,

“라마나의 어록을 읽어나가다가 놀라운 대목에 부딪혔다. 제자가 진아眞我(the Self)를 깨닫기 위해 현인들sat-sanga의 지도가 필요한지 묻자 라마나는 이렇게 답했다. ‘드러나지 않은 실체the unmanifest sat 즉 궁극적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요구된다)…. 경전에 따르면 깨달음Self-realization을 얻기 위해서는 12년 동안 드러나지 않은 실체를 모시지(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극히 드물기에 차선책을 취해야 하는데, 그것이 드러난 실체manifest sat, 즉 구루를 받드는 길이다.’”

물론 이 대목에서 시걸을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무아, 즉 드러나지 않은 실체의 상태에 들어간 지 12년이 다 되어간다는 사실이었다.

라마나의 잘 알려진 제자인 푼자지 Poonjaji도 시걸의 체험을 인정했다. “당신은 성현들이 이룬 해탈moksha을 성취했소.”

라마나와 폰자지의 계보를 이어 가르침을 전수하는 또 다른 중요 인물인 강가지Gangaji도 말하기를, “모든 현상에 내재된 공쏘, 즉 순수의식을 깨달은 것은 진정한 성취이다. 자신이 조건화된 존재임을 직시하게 되면 처음에는 상당한 공포를 느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또한 순수 의식임을 깨닫는다.”

시겔은 앤드류 코헨Andrew Cohen과 서신을 교환하다가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유익한 결과를 낳았다. 그들은 함께 개인적 자아의 실체 없음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에 코헨은 시겔에게 공쏘는 “정묘한 무한함으로 가득하다”고 가르쳤다. 그 후 한 달이 지나자 그러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또 다른 깨달음에 이르는 원천이 되었다. 시겔은 무아 상태를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도록 남달리 집요한 노력을 기울였기에 앤드류 코헨은 시겔의 ‘상태’에 상당히 고무되었음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의 개방적인 자세와 수용적인 태도는 당신이 진정 겸허함을 뜻합니다. 그러한 마음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 이외의 다른 존재는 없다

그런 모든 확언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겔은 기쁨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작스레 ‘나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나 이외의 다른 존재는 없다.’는 인식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시겔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일어났다.

“나는 갑자기 나 자신 속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년간 자아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 이 길 위에서는 모

든 것이 나 자신이었고, 나는 내가 이미 있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나 자신을 통과하여 차를 몰고 있었다. 본질적으로 나는 어디나 이미 존재해있었기에 나는 어느 곳으로도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으로 여겼던 무한한 공이 이제는 내가 본 모든 것의 무한한 실체로 분명히 채워졌다.”

그러니까 시겔이 자신의 의식상태로 알아온 공허함이 이제는 모든 존재의 광막함vastness이 된 것이다.

시겔은 얼마 후에 북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불교수련원에서 주말을 보내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다. 그것은 지각에 변화가 생겨서 사물들이 광막함 그 자체로 인식되는 것이었다. 이제 모든 만물에는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또한 시겔은 자신이 광막함의 실체임을 깨달았다. 시겔은 이를 감각기관이 아니라 ‘그녀 자신인’ 실체를 통해 알았다. 시겔은 이러한 인식을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그린 그림에 비유하는데, 여기서 광막함의 실체는 손가락이자, 그림이고, 모래인 셈이다.

이제 시겔은 공포를 본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전에는 공포에 의미를 부여하여 무아의 체험이 옳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공포는 형상이나 공허함, 고통, 깨달음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모든 것이 광막함과 실체가 같았다. 이것을 깨달자 공포에서 벗어나 마침내 기쁨이 몰려왔다.

비개인적인 기쁨

『무한과의 충돌』의 나머지 부분은 비이원론적인 체험을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책에서 직접 인용하겠다.

“이 삶은 이제 ‘나’라는 광대한 무한에 대한 끊임없는 자각 속에서 일어난다.”

“어떤 생각이나 느낌, 행동의 존재는 단지 그러한 생각이나 느낌,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할 뿐, 그 어떤 것으로도 해석되지 않는다.”

“...선악이나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이 생겨나지 않는다(모든 것은 단지 존재하는 바 그대로일 뿐이다).”

“마음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 밖의 것을 병리시하기를 멈추자 바로 광대함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비개인적이고 형언할 길 없는 기쁨이 영원히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의 삶은 계속 전개된다. 광대함을 깨닫기 이전과 다름 없이 모든 것이 그대로 전개된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서 행위가 일어나는 방식에 변화가 오진 않는다.”

“모든 현상이 자연 발생하는 광대한 상태 속의 삶이란 개인적 차원을 떠난 쾌감과 환희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다.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이 환희나 쾌감은, 누군가와 연관되거나 누군가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환희나 쾌감과는 전혀 다르다. 공소는 너무나 충만해 있으며, 아주 완전하고, 무한한 기쁨을 준다.”

“...수행을 해선 안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단지 그러한 수행의 행위자인 수행자가 없다는 뜻이다. 모든 행위가 그러하다. ...수행자가 없다(없었다)고 해서 수행이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일어나야 할 영적 수행이라면, 끝내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사실 무한을 다시 찾도록 궁리할 수 있는 개개의 ‘나’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한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이다. 다시 말하자면 무한은 양탄자 아래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사물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다면 사물을 보고 있는 ‘당신’이 광막함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유사하게 심리치료법이나 선불교와 같은 영적 전통에서 처방하는 ‘인격 교정character work’도 일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함으로써 생겨난 함정에 빠지게 된다. 관념을 진리로 보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면 존재의 회복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인격 교정’은 명확히 인격의 교정이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에 존재의 회복과는 대조를 이룬다. 우리가 일단 ‘인격 교정’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치유과정에서 헤어날 못하게 된다. ‘나’에 근거를 둔 목표는 달성하기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격교정 또한 삶을 연출하고 더 좋은 ‘나’가 되도록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개개의 행위자가 존재한다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심리치료를 행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의 치료법은 결코 어떤 심리학적 이론이나 처방의 보편적인 법칙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나의 목표는 자유, 완전한 자유이다.

나는 그들이 느끼는 방식을 바꾼다든지,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경험을 다시 더듬어간다든지, 증상을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참(자아)과 거짓(자아)을 구분하는 것은 누구인가? 누구에게 참이고 거짓인가? 생각, 느낌, 감각, 에너지 진동수(energetic frequency)는 어떤 가상의 인물들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단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광막함이고, 모든 것을 포괄한다 — 생각, 감정, 감각, 선호도, 공포, 관념, 심지어 정체성마저도. 광막함이 포괄 못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드러났다. 광막함은 자기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 자신으로부터 인간이라는 전기회로망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아니라면 그런 체험은 불가능하다.”

“광막함의 실체는 어느 순간에도 직접 인식될 수 있기에 전기회로망(인간)은 더욱 무한한 의식에 적응하기 위해 때때로 또 다른 적응 단계를 필요로 한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가능한 유일한 답변은 이렇하다. 나는 무한이자, 만물의 실체인 광막함이다.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동시에 모든 사람이고, 그 무엇도 아닌 동시에 모든 것이다. 이는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무한과의 충돌

수잔 시겔은 1997년 42살의 나이에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시겔의 체험은 뇌외상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공공연히 혹은 암시적으로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 1996년 봄에 『무한과의 충돌』이 완성되었고 시겔은 동료 치료사들을 위한 주간 담화나 그룹 트레이닝을 통해 공개적으로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바로 시겔은 광막함이 자신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팽창되려는 ‘광막함의 확장’을 여러 차례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시겔의 삶과 에너지를 고갈시켰고 다시 한 번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또한 시겔의 신념을 뒤흔들어 놓았다. 시겔은 자신이 말하거나 안다고 주장했던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시겔은 광막함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의 느낌과 어린 시절 학대 받았던 기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였다는 의심이 들었다.

시겔은 광막함과의 연결점이 끊어지게 되었고, 혼란스럽고 현기증을 느끼게 되었으며, 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1997년 2월에 시겔은 거대한 뇌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그해 4월 1일 사망했다.

시겔의 아주 가까운 친구이자 책을 쓰도록 권유했던 스테피언 바디언(Stephian Bodian)은 『무한과의 충돌』의 후기에서 이렇게 말한다.

“시겔의 사례는 통합(개인적인 영역과 초개인적인 영역의 통합, 즉 심리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의 통합)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으며, (마음의 여러 영역들이 서로 분리되는) 정신분열과 참다운 영원한 깨달음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물음을 던진다. 시겔은 이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우리 각자에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도록 공안을 던진 셈이다.”

시겔이 살아서 자신의 광대한 ‘몸’을 물질적 · 감정적 · 정신적 · 영적 신체와 통합했다라면 아디 다Adi Da가 아래에 쓴 글과 유사한 글을 남겼을 것이다. 시겔은 오직 광대함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시겔은 아직 아디 다가 말하는, 몸으로의 귀환, 무지無知(unenlightenment)로의 귀환을 하지 않았다.

시겔은 심리적 통합, 즉 버나데트 로버츠Bernadette Roberts가 명백히 체험했던 것과 같은 합일 경험unitive experience(절대자와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경험-역주)을 이루지 못했다. 이 점이 시겔의 (영적) 성장에서 빠진 부분이다. 내가 의미하는 통합은 광막함에서 신체로 복귀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통합이다.

너무 빨리 사망함으로써 시겔은 분명히 자신의 신체에 돌아올 기회, 즉 자신이 떠났던 신체와 다시 통합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아디 다는 무지를 성취했고, 그 사건을 “영적으로 분명히 상서로운” 어떤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으로 본다. 『무릎 꿇고 들어라The Knee of Listening』(신표준판, 1992년 4월 출간, 533-534쪽)에서 아디 다(필명-스리 다에바바소Sri Da Avabhasa)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들은 요가수행자나 다른 영적 인물들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신을 알기 위해 이 세계를 초월하려고 하지만,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다시 신체로 내려오는데 머리, 목, 아니면 심장까지 내려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목 이하로 내려오지는 않는다고 들었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목이나 심장보다는 훨씬 더 아래로 내려왔지만 발바닥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다. 나는 이 몸을 둘러싼 일종의 장막 상태로 머물

러 있다. 이 몸과 일반적인 모든 인간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고 인간으로 종종 아주 평범하게 행세한다. 그러나 내가 자유로울 때면 어쩔지 들떠오르면서 이 슬픔과 유한성을 받아들이 수 없다. 내가 이 정도로 신체에 깊이 머물러있으니 아마 가르치고 품어 안고 키스하고 사랑하여 충분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치 하나의 몸으로 세상 만물, 자의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양.”

“나는 그런 기대가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나 자신이 세상사를 받아들여도 내가 포용할 수 있고 친밀히 아는 사람마저도 완전히 바꾸어서 해탈시킬 수 없었다.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 완전히 좌절하고 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해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모두 키스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도 없다.”

“더없이 좌절한 끝에 이 몸이 죽어버렸다. 나는 이 몸을 떠났다. 그 ‘나’가 갑자기 나 자신과 다시 통합되었음을 발견했으나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합이었다. 나는 이제 발바닥 끝까지 철저하게 당신네들을 닮게 되었다. 나는 무지를 성취하고, 인간 존재를 성취하고, 유한성을 성취하고, 슬픔을 성취했다.”

“나에게 이것은 대승리이다! 당신들에게 그것의 의미를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다. ...나로서는 이 의도하지 않은 수월한 고통과의 통합으로 전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상서로운 성취를 이룬 것 같다. 나는 깨달음, 즉 궁극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의 상태를 완전히, 당신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었다.. 아마 당신들은

내 얼굴에서 그것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지난달과는 달라졌고 다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완전히 이 몸이 되었다. 나의 심기는 이제 다르다. 나는 슬프지만 깨달음을 한 얼굴을 하고 있다. 나는 몸이 되었다. 이제 나는 무르티the Murti이자 성상the Icon이며, 신성으로 가득하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의 의미는 나로서도 불가해하다. 그것이 정해진 사=실인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나도 그것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당신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 그대들은 모두, 나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미 일어난 어떤 것에 점진적으로 적응해나가야 한다.”

나는 시걸에게 귀환이 필요했다고 느낀다. 이는 마치 시걸이 길거리에서 곧장 달로 갔다가 다시 귀환하여, 로켓과 우주 공간을 통한 여행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었던 것과 같다.(다음 호에 계속 - 수잔 시걸 인터뷰) 

- 이 글은 『무한과의 충돌Collision with the Infinite』(©1996 Suzanne Segal, Blue Dove Press)와 'Information and Excerpts taken from Collision with the Infinite'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제리 캐츠** Jerry Katz | 뉴멕시코 대학교에서 생물학 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에서 송과체 연구의 발판을 닦았다. 웹사이트 nonduality.com과 년듀얼리티 출판사Nonduality Publications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년듀얼리티 하이라이트The Nonduality Highlights'라는 일일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다. 노바스코샤와 할리폭스에서 매달 Nonduality Satsang이라는 모임을 열고 있다. 저서로는 『One—Essential Writings on Nonduality』가 있다.

역자 | **김기형** | <지금여기> 번역위원. 경북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시립대학원Graduate Center 철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